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치과기공사의 인식조사: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제도를 중심으로

이혜은¹, 류재경², 이희경³, 김정숙⁴, 임종재⁴, 박범우⁵

¹경동대학교 치기공학과, ²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³대구보건대학교 치기공과, ⁴대전보건대학교 치기공과, ⁵바다치과기공소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dental technicians on how to improve the dental laboratory establishment registration system: focusing on the dentist's dental laboratory opening registration system

Hye-Eun Lee¹, Jae-Kyung Ryu², Hee-Kyung Lee³, Jung-Sook Kim⁴, Joong-Jae Im⁴, Beom-Woo Park⁵

¹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Kyungdong University, Wonju, Korea

²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Shinhan University, Uijeongbu, Korea

³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Daegu Health College, Daegu, Korea

⁴Department of Dental Lab Technology,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Daejeon, Korea

⁵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Bada Dental Laboratory, Cheongju, Korea

Article Info

Received February 16, 2021

Revised March 16, 2021

Accepted March 18, 2021

Corresponding Author

Hye-Eun Lee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Kyungdong University, 815 Gyeonhwon-ro, Munmak-eup, Wonju 26495, Korea

E-mail: hylee@kduniv.ac.kr

https://orcid.org/0000-0001-5816-6036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support of the policy research institute affiliated with the Korea Dental Technologist Association in 2020 (Korea Dental Technician Association 2020-Policy Research Proje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on dental technician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dental laboratory registration system and devise a plan to improve it.

Methods: For data collection,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14,015 dental technicians registered in the Korea Dental Technologist Association as of October 2020. Among the collected 405 questionnaires, 391 data were used for analysis.

Results: We found that dental technicians felt that the dental laboratory opening registration system was unfair. There were problems including the problem of the verification method of job performance, not acknowledging the difference in the job field, and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of work cooperation between dentistry and dental laboratories. Furthermore, it was recognized that the system was improved by reflecting the change in job area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times.

Conclusion: There is an urgent need to reorganize the legal system so that the dental technicians can have their professionalism and autonomy recognized while remaining faithful to the public interest of protecting the national oral health by revising the related regulations, thereby ensuring smooth work activities.

Key Words: Change, Cooperation, Improve, Problems, Structure, System

INTRODUCTION

치과기공업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업무 내용의 복잡성과 기술성을 요구하기에 이르면서, 치과기공업무의 예술성과 심미적 특성에 따라 새로운 치아의 대체물이나 장치물인 치과기공물을 제작, 수리, 가공하는 일과 기타 치과기공 업무의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은 치과기공사의 재량권에 의존되어 지고 있다[1].

우리나라 치과기공사의 인력양성은 1963년 의료보조원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으며, 1973년 의료가사법으로 승계되었다[2]. 치과기공사 배출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은 1971년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을 시작으로 2020년 기준 20개의 대학교와 전문대학이 개설되었으며 전문교육 기관의 개설에 따른 교육과정의 발전은 관련 업무의 과학화, 세분화, 전문화를 가속화 시켰다.

이러한 의료보건업의 분리·변화는 수행직무영역의 중복이나 모호

한 경우를 발생시켰으며, 이에 따라 의사, 한의사, 의료기사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거나 서로의 직업 영역의 피해와 희생이 뒤따르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3].

1973년 의료기사법에 의거, 치과기공사의 치과기공소 단독개설의 효시는 작고 협소한 공간적 한계와 대인업무를 하지 않는 치과기공사의 업무특성에 기인한다[4]. 이후 치과를 상대로 한 거래 관계의 성립은 치과기공업의 생존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2항[2]에 의거 치과기공소는 치과 의사, 치과기공사에게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치과기공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치과여사의 치과기공소 개설은 치과기공사가 개설한 치과기공소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능력이나 기술력, 품질, 가격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불공정 거래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무분별한 치과기공소 개설로 인한 수적 증가는 과잉경쟁을 야기해 적절한 기공수가 형성을 어렵게 함으로 치과기공소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다[5].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성격이 강한 치과기공 산업은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치과기공사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의 악순환이 가중되고 있으며[6], 전문 인력의 이탈 현상[7]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공정거래의 목적이 효율적 자원 배분 기능을 보호함과 동시에 전체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치과여사의 치과기공소 개설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가 있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치과 병·의원 형태의 규모가 작다고는 하나, 경제적 논리로 보면 구매기업과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의 관계와 유사하며, 치과기공소 개설은 마치 구매기업 자체로 생산시스템을 만들어 계열기업을 지배하고,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여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의료기사법에 의료기사의 업무수행을 의사의 '지도', '지시', '의뢰'로 전제(의료기사법 제 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2]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여사의 치과기공소와 치과기공사의 치과기공소 간 주수 경쟁이 공정한 경쟁이 되기란 쉽지 않다.

의사와 의료기사의 업무영역과 직업수행을 전제로 한 다툼을 해결함에 있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소비자인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보건 의료인의 시각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3]. 치과기공사들이 설 자리가 없다면 결국 양질의 치과보철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국민이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 국민건강보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제도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0월 기준으로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등록된 14,015명의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방법

을 택하여 실시하였다. 2020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대상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취지를 밝히고, 설문에 동의 여부를 물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405명의 설문 중 응답 자료의 결측치가 많은 14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서 제외한 후 391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제도 관련 설문은 전문가 집단의 토론 및 국내·외의 서적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개발하였다. 성별, 경력, 직위 3문항의 일반적 특성과 개설등록제도의 공정성 1문항, 개정·유지 관련 3문항, 개설등록제도의 문제점 1문항, 미래영향 1문항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4.0 (SPSS,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교차분석을 통해 빈도·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t-test, one-way ANOVA 분석을 통해 변수 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RESULTS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제도 공정성 인식

응답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332명(84.9%), 여성 59명(15.1%)으로 나타났으며, 경력은 16년 이상이 225명(57.5%)으로 나타났다. 직위는 소장 208명(53.2%), 실장, 주임기사가 79명(20.2%)을 차지하였다(Table 1).

Table 1. Recognition of fair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91)

Variable	Number (%)	Mean±SD	t/F(p)
Sex			
Male	332 (84.9)	1.51±0.80	-2.530
Female	59 (15.1)	1.79±0.71	(0.012)*
Career (yr)			
<1	2 (0.5)	1.50±0.70	2.764
1~5	37 (9.5)	1.83±0.95	(0.027)*
6~10	64 (16.4)	1.73±0.81	
11~15	63 (16.1)	1.53±0.69	
16≤	225 (57.5)	1.46±0.75	
Position			
Intestine	208 (53.2)	1.40±0.69	3.985
Chief and chief technician	79 (20.2)	1.65±0.88	(0.002)**
Plain technician	81 (20.7)	1.69±0.81	
Professor	12 (3.1)	2.08±1.24	
Assistant technician	5 (1.3)	2.00±0.70	
Etc.	6 (1.5)	2.00±0.89	
Total	391 (100.0)	1.55±0.80	

SD: standard deviation.

*p<0.05, **p<0.01.

‘치과의사에게 부여되는 치과기공소 개설권(제도)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5점: 매우 공정, 4점: 공정, 3점: 보통, 2점: 불공정, 1점: 매우 불공정). 남성이 1.51±0.80로 여성의 1.79±0.71에 비해 공정성에 대한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p<0.05), 1년 미만의 경력자(1.50±0.70)와 16년 이상의 경력자(1.53±0.69)가 공정성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p<0.05). 소장이 1.40±0.69, 실장 및 주임기사가 1.69±0.88로 직위가 높을수록 공정성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p<0.0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제도에 관한 치과기공사의 공정성에 관한 인식 평균은 1.55±0.8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Table 1).

2.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제도의 유지와 개정

‘치과기공소 개설이 직무 영역의 합리적 조정의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지, 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1점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2점은 ‘개정해야 한다’, 3점은 ‘보통’, 4점은 ‘유지되어야 한다’, 5점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로 분석하였다(Table 2).

남성(1.32±0.67)이 여성(1.50±0.76)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p<0.05) 경력(p<0.003), 직위가 높을수록(p<0.001)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1) 유지와 개정 이유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제도의 유지와 개정 관련 답변의 이유를 살펴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코자 하였다.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의 의견에는 상호의존적인 업무관계(4

명[1.0%], 치과의사의 전문성(4명[1.0%]) 등을 이유로 들었으며, ‘개정해야 한다’의 의견에는 ‘치과기공소 고유 업무영역으로 발전해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172 [44.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Table 3).

3.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제도의 문제점

치과의사에게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자격을 부여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 얻은 결과, ‘치과기공소 개설자격 부여에 전제되는 수행직무능력의 검증 방법에 있어 치과기공사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197명(50.4%)으로 과반을 차지하였다(Table 4).

4.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제도의 미래사회 영향

현행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제도가 치과의사, 치과기공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면, 미래 치과기공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Likert 5점 척도

Table 3. Opinion on maintenance & revision (n=391)

Variable	Number (%)
Maintenance	
① Not applicable	379 (97.0)
② Because the jobs of dentists and dental technicians are interdependent	4 (1.0)
③ I think that the dentist's qualification is equivalent to that of a dental technician	2 (0.5)
④ I think that the dentist's also have expertise in manufacturing dental prostheses	4 (1.0)
⑤ Dental prosthesis is manufactured and supplied according to the request of the dentist	2 (0.5)
Revision	
① Not applicable	12 (3.1)
② Since dentists do not perform dental prosthesis manufacturing, it does not fit the purpose of the licensing system, which grants licenses based on their job duties	101 (25.8)
③ Granting the right to registration a dental lab without verification of professionalism is not fair compared to a dental technician	64 (16.4)
④ Considering the business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dentists and dental technicians, it can hinder fair competition and disrupt the market	41 (10.5)
⑤ It should be acknowledged that as the profession has become specialized and subdivided, it has developed into a unique field of work for dental technicians	172 (44.0)
⑥ Etc.	1 (0.2)

Table 2. Maintenance and revision of the dental laboratory registration syste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91)

Variable	Number (%)	Mean±SD	t/F(p)
Sex			
Male	332 (84.9)	1.32±0.67	-2.483 (0.015)*
Female	59 (15.1)	1.50±0.76	
Career (yr)			
<1	2 (0.5)	1.00±0.00	4.126 (0.003)**
1-5	37 (9.5)	1.59±0.79	
6-10	64 (16.4)	1.60±0.88	
11-15	63 (16.1)	1.30±0.55	
16≤	225 (57.5)	1.28±0.63	
Position			
Intestine	208 (53.2)	1.25±0.61	4.394 (0.001)**
Chief and chief technician	79 (20.2)	1.48±0.76	
Plain technician	81 (20.7)	1.45±0.75	
Professor	12 (3.1)	1.41±0.51	
Assistant technician	5 (1.3)	2.40±0.89	
Etc.	6 (1.5)	1.66±0.81	
Total	391 (100.0)	1.36±0.69	

SD: standard deviation.

*p<0.05, **p<0.01.

Table 4. Problem (n=391)

Variable	Number (%)
① Compared to dental technicians, qualifications granted based on job performance verification violates equity	197 (50.4)
② It is a system that does not recognize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area of the job actually performed	97 (24.8)
③ It is a system that does not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ing relationship between dental laboratories and dentists	84 (21.5)
④ Etc.	13 (3.3)

Table 5. Impact on future society (n=391)

Variable	Number (%)	Mean±SD	t/F(p)
Sex			
Male	332 (84.9)	1.52±0.92	-2.785
Female	59 (15.1)	1.89±1.04	(0.006)**
Career (yr)			
<1	2 (0.5)	1.00±0.00	9.217
1~5	37 (9.5)	2.16±1.23	(<0.001)
6~10	64 (16.4)	1.93±1.11	
11~15	63 (16.1)	1.63±0.88	
16≤	225 (57.5)	1.37±0.79	
Position			
Intestine	208 (53.2)	1.34±0.76	6.246
Chief and chief technician	79 (20.2)	1.81±1.07	(<0.001)
Plain technician	81 (20.7)	1.82±1.04	
Professor	12 (3.1)	2.08±1.24	
Assistant technician	5 (1.3)	2.00±1.22	
Etc.	6 (1.5)	2.16±0.98	
Total	391 (100.0)	1.36±0.69	

SD: standard deviation.

**p<0.01.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5점 '매우 긍정적', 4점 '긍정적', 3점 '보통', 2점 '부정적', 1점 '매우 부정적'). 이에 대해 남성(1.52±0.92)이 여성(1.89±1.04)보다 미래사회 영향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p<0.01). 경력이나 직위가 높을수록 낮은 점수를 나타내, '미래사회 영향이 부정적 일 것'이라는 의견이 강했다(p<0.001) (Table 5).

DISCUSSION

최근 현대 의료환경의 첨단화, 경쟁, 새로운 질병 양상 및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 등 지속적인 의료 환경의 변화에[8]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는 동반자적 팀워크를 이루어야 할 뿐 아니라[5] 상호보완적이며, 보다 진취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973년 치과기공사의 치과기공소 개설 허용에 따른 치과 치료업무와 치과 보철제작업무의 공간 분리는 치과의사는 치료영역에, 치과기공사에게는 치과보철물 제작 영역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능동적이지 못한 제도마련의 더딤은 변화된 업무영역을 반영하지 못함으로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의 상호보완적인 관계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치과기공 산업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제도에 관한 인식을 살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치과의사에게 부여되는 치과기공소 개설권(제도)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평균 1.55±0.80로 공정성 인식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치과기공사의 제도 공정성 인식이 낮은 데에는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실) 개설이 치과기공소의 수적 증가와 과잉경쟁을 부추겨 적정기공 수가의 형성을 어렵게 함으로 치과기공소의 경영악화를 가속화 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개인의

평등성을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의 결과로 Kim [9]은 치과의사와의 수직적 관계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집단의 이직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음을 언급한 바 있다.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수행직무능력의 검증 방법이 치과기공사와 비교해 형평성에 위배 된다'는 의견이 197명(50.4%)으로 나타났으며 '수행직무영역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제도'라는 응답 역시 97명(24.8%)로 나타났다. 치과기공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 학점 수는 3년 또는 4년 학제에서 40~60개의 전공과목의 120~140여 학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치과대학 교육 중 몇 개의 한정된 과목과 시수만으로 치과보철제작 수행직무교육에 집중된 치과기공사의 전문영역을 통괄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 이타적인 동기를 고려하여 자격과 면허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두어 현대의료의 전문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10].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학 분야의 경우, 일정한 면허(국가)시험 내지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그 직업을 선택하여 행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11] 세분화된 전문가적 역량을 절실히 요구하는 의료보건 분야에서 치과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치과기공사 면허에 준하는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치과기공소 및 치과기공업은 2006년 국세청 치과기공소 업종 코드 조정으로 종전의 기타의료업(851905)에서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331101)으로 변경되었고, 2008년 정형외과용 신체보정용 기기제조업(코드 27192)으로 분리되었다. 의료보건업에서 제조업으로 업태가 변경된 것은 사업자 등록증의 업태 구분 이상의 의미가 있다. 제조업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의미한다. 더불어 공장 혹은 공장에 준하는 시설에서 영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치과기공소는 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필수 장비 13개를 구비해야 하며, 판매 허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데 반해 치과의원 내 치과기공소(실)는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는 등 [12]의 법 기준이 모호하다. 치과 내 보철물 제작을 위한 '제조업 허가' 취득의 당위성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입장이 존재한다. 하지만 치과의사가 운영하는 치과기공소(실)와 치과기공사가 운영하는 치과기공소의 업무가 다르지 않다면, 같은 기준과 법이 적용되고 이행되어야 맞다.

'치과기공소 개설이 직무 영역의 합리적 조정의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지, 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평균 1.36±0.69로 유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행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제도가 치과의사, 치과기공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면, 미래 치과기공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남성(1.52±0.92)이 여성(1.89±1.04)보다, 경력이나 직위가 높을수록, 미래사회 영향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강했다(p<0.01, p<0.001).

보건의료인의 직업 면허가 단순히 전문적 지식과 기술 관련 자격 요

건을 갖춘 자에게 보건 의료 업무 종사를 허용하는 제도가기 이전에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이익을 전제한다면[13], 치과의사는 환자의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적절한 치료행위를 함과 동시에,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의뢰한 보철물을 표준화된 제작 공정에 따라 제작함으로써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 간 상호보완적 관계의 시너지 작용으로 환자 치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각각의 독립적 수행 직무영역을 인정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제도에 관한 인식을 살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1.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능력의 검증방법과 수행직무영역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음, 치과와 치과기공소의 업무협력 구조에 관한 이해의 부재 등을 문제로 들었으며, 시대변화에 따른 직무영역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치과기공사가 원활한 업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민구강건강 보호라는 공익에 충실하면서, 치과기공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인정되도록 법체계의 정비에 시급하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ORCID

Hye-Eun Lee, <https://orcid.org/0000-0001-5816-6036>
 Jae-Kyung Ryu, <https://orcid.org/0000-0002-3950-3436>
 Hee-Kyung Lee, <https://orcid.org/0000-0002-8332-2376>
 Jung-Sook Kim, <https://orcid.org/0000-0001-5362-7753>
 Joong-Jae Im, <https://orcid.org/0000-0002-5263-7754>
 Beom-Woo Park, <https://orcid.org/0000-0001-7675-9687>

REFERENCES

1. Lee HS. Introduction to dental-technology. Seoul: Daihakseolim, 1995. p. 11.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ct on medical engineers, etc. Current laws [Internet]. Sejong: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1 [cited 2021 Feb 10]. Available from: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7982#0000>.
3. Park JH. A consideration of the systems related to physical therapist license in Korea [master's thesis]. Yongin: Yong-in University, 2006.
4. Korean Dental Technologist Association. About the association, 50 years history-footprints [Internet]. Seoul: Korean Dental Technologist Association; 2016 [cited 2021 Feb 5]. Available from: <http://www.kdtech.or.kr/intro/DENTAL/index.html#page=30>.
5. Kim HJ. A research study on Korea dental laboratory management deterioration cause and improvement plan [master's thesis]. Pusan: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2015.
6. Min BK. A study on the demand and supply policy for dental technician manpower in Korea [doctoral dissertation]. Yongin: Dankook University, 2009.
7. Kim KB, Kim JH, Kim JH. Suggestions on the model of exporting strategy for the overseas dental prosthetic restoration service. J Korea Contents Assoc. 2013;13:333-338.
8. Shin H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ism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clinic nurses': focus on job performance, organization commitment & career commitment [master's thesis]. Seoul: Hanyang University, 2009.
9. Kim KI. The influences of organizational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on the turnover intention of dental technicians. J Tech Dent. 2020;42:290-297.
10. Park GW, Lee JY, Kim ST, Park MJ, Im KH, Jo JM, et al. (Easy to understand) health and medical related laws; case law and commentary. Seoul: JIGU Culture, 2000. p. 610-620.
11. Kim NJ. Basic issues of administrative law. 3rd ed. Seoul: Bubmunsa, 1992. p. 50-60.
12. Park YH. Dental technicians' union chairperson requests win-win in the dental industry through a one-person demonstration in front of the Dental Association [Internet]. Seoul: Dentalk; 2019 [cited 2021 Feb 5]. Available from: <http://news.kdha.or.kr/news/articleView.html?idxno=9027>.
13. Kim KK. Regulation of healthcare profession and business: professional licenses and regulation of business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2003.